

충남 외암리 민속 마을의 안방 사용과 가구 보유 실태 연구*

A Study of the Anbang Usage and Furniture in Oiam-Ri Folk Village in Chung-Nam Province*

성심수녀회 한국관구장
고도임

Provincial of The Society of the Sacred Heart in Korea
Sr. Koh, Do Y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결론 및 제언 |
| II. 조사결과 및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sent traditional Korean farmhouse based on a survey of 30 households from Oiam-Ri folk Village in Chung-Nam Province. This study was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present housing; the size and plan of the house, lighting and heating, the finishing materials of anbang(the master's bedroom or ondol) and the kinds of furniture. I was also interested in identifying the socio-demographic and physical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housing, both the ordinary farm households and the descendent of nobility households.

Bibliographical studies, cultural approaches, field surveys with tape recordings, an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the dat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ypes of house plans were mixed from the southern region(one-line type) and middle region(courtyard type). The heating system and the fuel for the ondol anbang has changed entirely from wood burning system to oil boiler system. The finishing material of the anbang floor changed from traditional oil paper and straw mats to vinyl flooring. Traditional furniture and small decor items are disappearing and are being replaced by modern items, but the descendents of the nobility household kept many traditional type of furniture and small decor items.

* 본 연구는 1998년 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의의

현재 우리 사회가 개방화와 지구촌 시대의 물결 속에 휩싸이면서 전통농가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농가의 주거생활도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성을 밝혀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온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지구촌을 형성해 가면서 각 나라와 지역에 관계없이 생활양식이 비슷하게 되어 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화적 보편성에 따라 변질되어 가는 각 문화권 고유의 전통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주거문화의 뿌리를 찾는 것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새롭게 조명해 보는 길이 되고 또한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우리 주거문화의 뿌리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온돌문화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이 연구는 점차 사라져 가는 한국의 전통농가와 반가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충남 아산시 송악1구 외암리(忠南 牙山市 松岳 一區 外岩里)에 위치한 전통 농가와 반가를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안방의 물리적, 문화적 변화 등을 조사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전통 민속마을의 주택과 거주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이 규명되고 전통적인 안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안방의 가구와 소품의 변화도 조사하는데 이는 가구와 소품은 실용성과 장식성이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집주인 부부의 품위와 사회 경제적 위치를 나타내고 있음으로 주거 문화연구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

여기서 안방만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이유는 첫째, 모든 온돌방 중에서 안방이 제일 중요한 곳이고 둘째, 농촌의 인구감소로 다른 방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셋째, 모든 방을 조사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부족한 대문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전통 마을을 문화재로만 취급하고 마을 공간과 민가를 조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통 마을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마을 원형 고찰과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연구, 마을을 인류학·사회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 마을 변화의 정도를 외부 요인에 의해 파악하는 연구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¹⁾ 이외에도 전통 마을의 구성 체계와 전통 생활에 따른 공간 이용에 대한 연구(정준현 외, 1990), 전통 마을을 대상으로 보전에 대한 방법론적인 접근이나 해석에 대한 연구(김성균, 1992; 강동진, 1997; 강동진, 황기원, 1997) 등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외암리 민속마을의 주거실태를 파악하여 전통성을 바탕으로 한 주거생활 특히 안방의 변화와 그 현주소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속마을의 주택과 거주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다.

둘째, 민속마을 주택과 안방의 물리적 변화 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전통가구 및 현대가구 보유 현황을 조사한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현지조사방법을 사용하여 관찰, 기록, 실측, 사진 촬영, 녹음을 하고 특히 생활 문화적 측면의 실태와 특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활용하고 심층면접 내용을 녹음한다. 이 때 사용한 설문지는 본 연구팀이 작성하여 2차에 걸친 예비조사(1998년 4월, 5월)를 거쳐 구조화한 것이다. 조사된 가구는 총 30가구이며 모두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양적 분석으로 빈도수와 백분율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팀은 1998년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11월 8일에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농가는 건축된 지 10년 이상된 전통농가로서 새로 지은 농가와 거주기간이 짧은 농가는 제외되었다. 조사대상

1) 강동진(1997). 정주형 역사환경 보전방법론 설정. 국토계획, 32(4), 169면 <표 4> 제인용.

응답자는 주로 40세 이상의 주부나 가구주 혹은 노주부(老主婦)로 정하였다.

II. 조사결과 및 논의

1. 마을의 일반적 특성

1) 마을과 주거의 개관

외암리는 두 개의 자연부락인 외암골(上村, 下村)과 설화리를 합쳐 외암리 1구(區)라 하며 민속보존지역은 외암골에 한정하여 지정되어 있다. 1978년 충청남도에서 민속마을로 선정하고 그 후 다시 1982년 3월 민속관광마을로 개칭되고 1988년 문화공보부 지정 민속마을이 되었다. 외암마을은 온양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설화산 동남쪽의 산간 분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마을은 전체적으로 동북에서 남서쪽으로 거의 완만한 평지를 이루며 주위에는 여러 개의 작은 구릉으로 연결되는 전답으로 이어졌다.

1998년 11월 현재 외암골의 가구수는 65가구로 남자 215명, 여자 205명으로 총 인구는 420명이다. 가구의 주업은 농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마을은 예안 이씨의 동족마을로써 예안 이씨가 38가구로 전체 가구의 58%를 차지하는데 옛날에는 70-80%가 예안 이씨였다고 한다. 현재와 같은 모습의 마을이 형성된 것은 200여 년 전부터로 보이며 현존하는 민가의 상당수는 약 100년전을 전후하여 건축된 것이라 한다.²⁾

2) 조사대상가구의 특성

(1)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대상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평균 연령은 가구주 61.9세이고 주부 57.5세, 평균 가족수는 3.4명이다. 가족구성을 보면 2세대 가족이 9가구(30.0%)로 가장 많고, 가구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36.7%)이 가장 많았고, 직업은 대다수가 농업(70.0%)이었다. 경제적 특성을 보면 곡물 소득이 있는 가구에서는 평균 약 40가마

<표 1> 외암리 거주 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30, f(%)

항목	분포	평균, 빈도	
		평균	빈도
연령	가구주	61.9세	
	주부	57.5세	
가족수	1-2명	10(33.3)	평균 3.4명
	3-4명	13(43.4)	
	5-6명	6(20.0)	
	7명 이상	1(3.3)	
	계	30(100.0)	
가족구성	3세대	6(20.0)	
	2세대	9(30.0)	
	부부	7(23.3)	
	조부+손자	4(13.3)	
	편부모+자녀	3(10.0)	
	단독	1(3.3)	
계	30(99.9)		
가구주 학력	무학	6(20.0)	
	초등졸	11(36.7)	
	중졸	7(23.3)	
	고졸	3(10.0)	
	대졸 이상	3(10.0)	
	계	30(100.0)	
가구주 직업	무직	5(16.7)	
	농업	21(70.0)	
	공무원	2(6.7)	
	자영업	1(3.3)	
	건설업	1(3.3)	
	계	30(100.0)	

정도의 농작물 수확이 있고 현금 소득은 평균 약 1,113만 원 정도이고 월평균 지출은 약 68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빚을 지고 있는 가구도 9가구(30.0%) 있었는데 평균 액수는 1,270만 원 정도였다. 이 마을에서는 다른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노령인구 비율이 올라가고 있었고, 지리적으로 도시와 가깝고 민속마을의 특성상 외지인이 많이 드나들면서 도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사진 1>은 이 마을의 전경이고, <사진 2>와 <사진 3>은 신수남 씨

2) 충남 아산군(1990). 아산 외암마을 보존방안 학술조사 연구보고서, 12-22면 참조.

〈표 2〉 외암리 주택의 특성(I)
(민가 25, 반가 5)

항목	분포	평	균
건축년수		83.7년	
당대거주년수		35.6년	
집터크기	민가	188.96평	
	반가	884.0평	
주택의 칸수	민가	안채: 7.08, 사랑채: 3.65	
	반가	안채: 11.5, 사랑채: 11.2	
온돌방수	민가	3.3	
	반가	7.6	

〈표 3〉 외암리 주택의 특성(II)
(민가 25, 반가 5)

항목	분포	f (%)	
		형	비율
주택배치 형태	민가	형 1	10 (40.0)
		형 2	3 (12.0)
		형 3	4 (16.0)
		형 4	3 (12.0)
	기타	5 (20.0)	
계		25	(100.0)
반가	형 1	2 (40.0)	
	형 2	1 (20.0)	
	형 3	1 (20.0)	
	형 4	1 (20.0)	
계		5	(100.0)
주택의 향	남향	29	(96.7)
	서향	1	(3.3)
지붕재료	안채	초가	12 (40.0)
		한기와	11 (36.7)
		슬레이트	5 (16.7)
		양기와	2 (6.7)
	계		30
사랑채	초가	8	(50.0)
	슬레이트	5	(31.3)
	한기와	3	(18.8)
계		16	(100.1)

택과 영암택 안채이다.

대상가구의 주택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2〉 〈표 3〉과 같다. 주택의 평균 건축년수는 83.7년, 당대 거주년수는 35.6년으로 나타났다. 집터를 보면 민가는 평균 188.9평, 반가의 평균 규모는 884평이었고, 주택의 배치형태는 민가에서는 一자형과 중정형이 각각 40%씩이고 반가에서는 주로 중정형이고 가묘가 있었다. 주택의 향은 남향(96.7%)이 압도적이었고 주택 칸수는 민가 안채의 경우 평균 7.08칸이었고, 반가는 11.5칸으로 민가보다 4칸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붕재료는 안채는 초가(40.0%), 사랑채도 초가(47.1%)가 많았고, 온돌방의 평균 개수는 민가는 3.3개, 반가는 7.6개로 민가보다 두 배 이상이나 더 많았다.

2. 외암리 마을의 안방 사용 실태

외암리 마을은 민속마을로 지정된 후로는 다른 마을처럼 농가 주택의 안과 밖이 많이 변하지 않아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된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집 밖에서 볼 때는 거의 변한 것이 없는 듯하지만 일단 집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1) 안방의 크기와 거처하는 사람

전통 주택과 전통 농가의 생활공간 중 안방은 대



〈사진 1〉 외암리 마을 전경
(촬영 : 고도입, 1998. 11. 21)



〈사진 2〉 신수남 씨 댁
(촬영 : 고도임, 1998. 8. 10)



〈사진 3〉 반가 영암댁
(촬영 : 고도임, 1998. 4. 24)

단히 중요한 곳으로 집 주인 부부의 침식은 물론이고 예로부터 집안의 중요한 재물이 보관되고 장이나 농 등으로 장식이 된 곳이다. 또 이 곳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가족의 임종도 여기서 이루어졌으며 가장이나 주부의 몸이 불편할 때 쉴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며 특히 반가에서는 여성 공간으로 외간 남자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안방은 서양의 거실보다 훨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이었다.

근래에 와서 이 안방은 상당히 개방되었으며 다목적 공간의 활용성이 중요시되어 안방의 크기가 예전에 비해서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다.

현재 외암리 마을 주택의 안방 크기는 평균 2칸

〈표 4〉 주부가 거처하는 방

N=30

방명	분포	f (%)
안 방		28(93.4)
진년방		1(3.3)
사랑방		1(3.3)
계		30(100.0)

이었는데 평균 크기는 길이 456.7cm, 폭이 313.3cm, 높이 224.1cm였다. 조사 가구 중 안방에 뒷마루가 달린 경우는 21가구(70.0%)로 나타났다. 이 통계수치는 다른 농촌의 평균수치보다(고도임 1994, 1996) 훨씬 크고 또한 뒷마루도 훨씬 많다. 위의 〈표 4〉에서 보듯이 주부가 남편과 거처하는 방은 역시 안방으로 93.4%나 된다.

2) 안방의 규모의 변화와 조명시설

조사대상 가구 중 안방의 크기를 변경한 가구는 〈표 5〉과 같이 민가의 경우 안방의 증축이나 축소가 없었던 가구가 60%로 다수이고 방 2개를 터서 하나로 만든 경우가 6가구나 되었다. 반가의 경우는 방 2, 3개를 터서 큰 안방으로 만든 집과 부분증축(골방을 트거나 반칸쯤 증축함)한 집이 두 가구였다. 안방의 크기가 바뀐 시기는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였다.

안방의 조명시설은 현재 모든 가구가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1960년대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민가에서는 보통 등잔불을 사용하였고, 반가에서는 등잔불이나 남포불을 사용하다가 60년대에 백열등으로 바뀌고 80년대 이후에 형광등으로 바뀌었다.

안방의 방문이나 창문을 변경한 가구는 4가구였

〈표 5〉 안방의 규모 변화

N=30

항목	분포	민가 : f(%)	반가 : f(%)
방2, 3개 터서 방1개로		6(24.0)	2(40.0)
1칸 증축		1(4.0)	0
부분증축		2(8.0)	2(40.0)
기 타		1(4.0)	0
변화없음		15(60.0)	1(20.0)
계		25(100.0)	5(100.0)

는데 문을 새로 만들거나 미닫이문을 설치하거나 방문의 수를 더 늘린 경우이다. 안방 출입문의 종류는 여닫이문이나 미닫이였고, 창문은 1개인 가구가 14가구(46.7%)로 가장 많고 대부분이 피살 창호지 문이었다.

3) 안방의 바닥 마감재료

안방 바닥의 마감재료로는 현재 비닐장판이 가장 많았다(86.7%). 방바닥 재료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본 조사에서 바닥 마감재가 바뀐 연도를 정확히 밝혀내지는 못했으나 대략 1960년대 전후부터 1970년대에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이전에는 재래식 장판이었다가 비닐 장판으로 바뀐 가구가(50%) 제일 많았다. 그 다음이 비닐 장판을 새 비닐로 교체하거나 푸대종을 사용하다가 비닐로 바꾼 가구가 몇 집이 있었다. 이 외암리 마을의 안방 바닥 마감재의 절반이 이전에 재래식 장판이었다가 비닐로 바뀐 집은 주목할 만하다. 보통 농촌의 경우는(고도임 1994, 1996) 한 마을에 극소수의 집만이 재래식 장판에서 비닐장판으로 변하고 대다수는 왕골자리나 죽석(77.5%, 81.0%)에서 비닐장판으로 바꾼 사실로 미루어보더라도 이 외암리 마을은 상당히 부유한 농촌임이 입증된다고 본다. 벽지와 천장의 마감재도 외암리 마을은 예전부터 대부분이 보통 벽지를 사용했다.

4) 안방의 난방 및 난방연료

옛날 농가에서는 안방의 난방이 모두 다 나무를 때서 취사도 하고 동시에 온돌 바닥을 따뜻하게 하여 생활하였다. 1960년대에 연탄이 보급되어 널리

<표 6> 안방 바닥 마감재의 변화 N=30

이 전*	현 재	f (%)
재래식 장판	재래식 장판	3(10.0)
재래식 장판	비닐 장판	15(50.0)
비닐 장판	재래식 장판	1(3.3)
비닐 장판	비닐 장판	8(26.7)
푸대종이	비닐 장판	3(10.0)
계		30(100.0)

*이전 시기는 대략 1960년 전후와 1970년대를 말함.

<표 7> 안방의 난방연료의 변화 N=30

난 방 연 료		f (%)
이 전*	현 재	
나무→나무·연탄	가스	2(6.7)
나무→연탄	기름	1(3.3)
나무·연탄	기름	12(40.0)
나무	기름	11(36.7)
연탄	기름	2(6.7)
연탄	가스	1(3.3)
기름	기름	1(3.3)
계		30(100.0)

*이전 시기는 대략 1960년 전후와 1970년대를 말함.

활용될 때에도 이 연료는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해 주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연탄 보일러가 들어오고 1980년대부터 부엌이 개조되어 입식화되면서 난방연료와 취사연료는 자연스럽게 분리되었다.

이 마을에서 난방연료를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즉 이전(1960년 전후와 1970년대)에는 나무가 주종을 이루다가 현재는 기름이 주종을 이루는데 그 바뀐 경위가 다양하다. 제일 많은 빈도가 나무와 연탄을 사용하다가 기름보일러로 바꾼 가구로 12가구(40%)이고 다음은 나무에서 직접 기름 보일러로 바꾼 집이 11가구(36.7%)이다. 이로써 현재 외암리 마을 안방의 난방 연료는 거의 다 기름이며 난방과 취사 연료가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통 농가에서 안방의 난방방식이 재래식 아궁이에서 연탄으로 바뀌고 또 한번 기름보일러로 바뀌는 과정(고도임, 1994)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결과이다.

3. 외암리 전통 농가의 가구(家具) 보유 실태

1) 전통가구와 소품

조사대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가구(傳統家具)와 현대가구는 민가와 반가 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표 8>과 같다. 전통가구 보유 현황을 보면 민가의 경우 요강(12가구), 다듬이돌(10가구), 모기장, 병풍(8가구), 반다지(5가구) 순으로 나타나 전통가구는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는데 고도임(1996) 연구에서도

〈표 8〉 전통가구와 소품 보유현황

N=30(민가=25, 반가=5)

번호	품명	민가(f)	반가(f)	번호	품명	민가(f)	반가(f)	번호	품명	민가(f)	반가(f)
1	장	4	4	24	요강	12	4	47	선반	0	3
2	농	4	4	25	액자, 족자	4	4	48	밥상	0	3
3	의걸이장	0	3	26	병풍	8	4	49	차상	0	3
4	버선장	0	1	27	벽화	0	3	50	교자상	0	3
5	반다지	5	3	28	인두	0	2	51	박바가지	0	2
6	머릿장	0	1	29	인두판	0	2	52	두레박	0	3
7	머리장농	0	1	30	이불	0	3	53	찬합	0	2
8	함	1	2	31	삼단요	0	1	54	광주리	1	3
9	케	2	3	32	요	0	3	55	소쿠리	1	3
10	경대	1	3	33	베개	0	3	56	채반	0	3
11	빗집	0	1	34	부채	0	3	57	나무함지	0	3
12	문갑	1	3	35	양초	0	2	58	꽃향아리	0	4
13	탁자	0	2	36	편갈	0	3	59	목판	1	4
14	사방탁자	1	2	37	다식판	0	3	60	뒤주	0	4
15	고비	0	2	38	화장지	0	2	61	꿀, 설탕향아리	0	2
16	반질그릇	4	2	39	벼루	0	3	62	종이향아리	0	2
17	희대	0	3	40	찬장	0	3	63	말	0	4
18	다듬이돌	10	4	41	협도	0	2	64	이층그릇장	0	3
19	다듬이가구	7	4	42	돛자리	0	3	65	경대	0	2
20	대고리	0	3	43	맷돌	0	3	66	방석	0	3
21	등잔(대)	1	2	44	다듬이틀	0	2	67	사진틀	0	2
22	모기장	8	3	45	방망이	0	2	68	제기	0	5
23	발	1	3	46	연장그릇	0	2	69	기타	0	0

민가에서 보유한 전통가구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통가구를 보유하고 있어 민가와 반가 간의 생활의 규모 차이에서 오는 가구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반가

에 있는 전통가구의 경우 현재는 몇 가지만 사용하고 그 외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장롱, 의거리, 반다지, 케, 경대, 문갑, 탁자, 발과 요강 등은 안방에 있으며 그 외는 각 공간별로 흩어져 있거나 창고 같은 부속 공간에 쌓아두고 있었다. 그리고 장, 문갑, 케 등 몇 점은 온양민속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다음 〈사진 4〉는 영암댁에 있는 전통가구이다.

2) 현대가구와 소품

현대가구와 소품의 소유 현황을 보면 〈표 9〉와 같다. 민가의 경우 TV세트, 전화, 벽시계, 전기밥솥은 거의 모든 가구가 보유하고 있으며 옷장, 다리미, 옷걸이, 이불장, 선풍기, 서랍장 등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서 현대적인 생활가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반가의 경우는 전통가구를 일부 사용하면서도, 옷장, TV세트, 전화, 전기밥솥 등의 현대가구를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진 4〉 영암댁의 전통가구
(촬영 : 고도임, 1998. 8. 12)

〈표 9〉 현대가구와 소품 보유현황

N=30(민가=25, 반가=5)

번호	품 명	민가(f)	반가(f)
1	옷 장	20	5
2	이불장	19	4
3	서랍장	15	4
4	침 대	3	1
5	보조탁자	7	0
6	원형테이블	0	0
7	TV세트	24	5
8	오디오세트	12	2
9	라디오	1	2
10	녹음기	0	2
11	전 화	25	5
12	안락의자	4	0
13	흔들의자	2	1
14	보조의자	1	1
15	책 상	14	4
16	결 상	13	3
17	책 장	8	4
18	옷걸이	20	3
19	캐비닛	2	0
20	재봉틀	7	4
21	화장대	10	3
22	벽시계	25	5
23	장식장	7	4
24	그 림	6	4
25	화 병	2	4
26	수납장	1	0
27	벽 장	0	2
28	다 락	0	2
29	다리미	20	3
30	전기밥솥	23	5
31	선풍기	18	3
32	액 자	1	1
33	가습기	0	2
34	전기스탠드	0	2
35	보온병	0	3
36	방 비	0	3
37	쓰레받기	0	3
38	냉장고	0	3
39	사진틀	15	5
40	에어컨	1	0
41	컴퓨터	1	0
42	비디오	2	0



〈사진 5〉 조봉환 씨 덕의 현대가구

(촬영 : 고도임, 1998. 11. 8)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민가에서는 생활의 규모와 안방의 크기가 적은 탓도 있겠으나 전통가구보다는 현대식 가구를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하고 선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도임 1994). 한편 반가에서는 양반으로서의 전통을 지키려는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전통가구가 많으면서도 현대적인 생활의 흐름에 맞추어 현대가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사진 5〉는 조봉환 씨 덕 안방에 있는 현대가구이다.

I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충남 외암리 민속마을의 주거실태를 파악하여 전통성을 바탕으로 한 온돌 안방의 현 주소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재 이 마을은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주택의 전통성 보존에 힘쓰고 있으며 관광지로서 개발되고 있는 관계로 반가에서는 매일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현대적인 도시 문명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1.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다른 농촌들과 비슷하게 가족수가 줄어들고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마을은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가구들이 많고 또 오래된 주택이 많으며 민가와 반

가로 구분이 된다. 주택 배치 형태는 남쪽지방 형식인 一자형과 중부형의 중정식 형태가 섞인 지역이라고 하겠다. 반가의 주택 배치 형태는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거의 중정식으로 안채, 사랑채, 문간채와 사당이 있었다. 민가나 반가 모두 외관만은 전통성을 유지하려고 크게 노력하고 있었다.

2. 안방은 그 규모가 커졌는데 다른 농촌보다 상당히 큰 편이고 또 안방에 뒷마루가 달린 경우가 많았다. 옛날에는 모두 나무로 불을 때서 취사작업과 난방을 동시에 했으나 현재는 거의 다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취사연료(L.P.G와 전기)는 별도로 쓰고 있었다. 여하튼 이 마을에서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생활하는 우리의 온돌문화의 불변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마을의 온돌 안방의 창문은 대부분 창호지를 발랐으며, 방문은 여닫이와 미닫이가 많았고 방바닥은 비닐장판이 대다수이다.
3. 조사대상 가구 중 전통가구의 보유현황은 민가와 반가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즉 민가의 경우 요강, 다듬이틀, 모기장, 병풍 등의 소품만 다소 남았으나 반가에서는 장, 농, 액자, 병풍뿐 아니라 67가지의 전통가구와 소품들이 골고루 남아 있었다. 현대가구는 민가와 반가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있어서, 전화, TV세트, 벽시계, 전기밥솥 등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반상(班常)의 개념이 없어진 현대에 와서는 경제력에 따라서 가구를 구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전통가구조사에서는 민가와 반가의 구분이 분명하지만, 현대가구에서 반상의 구별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겠다. 그리고 보통 민가의 전통가구와 현대가구 및 소품들은 다른 농촌의 경우와 비슷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한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민속마을이 되어 관광지로 인식되어 온 전통마을을 조사 연구하는 데 간과하기 쉬운 생활적인 내용 즉 주부의 가사 노동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전통 주택 연구

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사례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사례 수를 늘리고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를 하면 더 좋을 것이다. 특히 반가의 사례 수를 늘려서 조사하여 전통성이 점점 퇴색해 가고 있는 주거문화 전반에 걸쳐 시대별, 지역별로 심층 조사를 하여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가 해 내지 못한 전통 농가 부엌(안방 부엌)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1) 강동진(1997). 정주형 역사환경 보전방법론 설정. 국토계획, 32(4). 161-194.
- 2) 강동진, 황기원(1997). 경주 양동마을 변천의 해석. 국토계획, 32(5). 265-296.
- 3) 강영환(1991). 한국 주거 문화의 역사. 기문당.
- 4) 고도임(1994). 경기도 전통농가의 주생활 연구. 성심여자대학출판부.
- 5) _____(1996). 구술사에 의한 전통농가 노주부의 결혼 당시와 현재 주생활 비교. 한국주거학회지, 7(2). 29-44.
- 6) 김광언(1988).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 7) 김선우(1979). 한국 주거난방의 사적 고찰. 건축 23권 90호, 17-22.
- 8) 김성균(1992). 전통적 마을의 개발 및 보존을 위한 환경현장연구방법적 접근. 국토계획, 27(2). 161-179.
- 9) 김성우, 김소연(1993). 호남지방 전통주택에서의 규모와 평면형식. 건축역사연구, 2(2). 66-75.
- 10) 김성우, 윤정숙(1988). 서울 근교 농촌실태조사 보고서1.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건축공학과.
- 11) _____(1990). 서울 근교 농촌실태조사 보고서3.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건축공학과.
- 12) 김정기(1987). 주택사적 민가론. 건축과 환경. 한국건축론 특집Ⅱ. 82-92.
- 13) 박영순 외(1998). 우리옛집 이야기. 열화당.
- 14) 백영흠, 정명섭(1990).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주

- 생활공간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창간호, 103-111.
- 15) 신영훈(1987). 한옥의 조영. 광우당.
- 16) 오영인, 송용식(1987). 전통적 주거문화로서의 온돌, 주택 48, 136-153.
- 17) 정준현, 손광제, 이중우(1990).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주생활공간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창간호, 65-76.
- 18) 최찬환(1986). 한국의 농촌과 도시 주거양식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 충남 아산군(1990). 아산 외암마을 보존방안 학술조사연구 보고서.
- 20) 하종한(1992). 민가유형의 분류 체계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3(1), 69-84.